

“새해 기약하는 희망의 달 되길”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탄력’

무주군, 12월 월례조화... 황인홍 군수, 직원 노고 감사·동절기 군민불편 최소화 강조

무주군은 2일 무주군민의 집 대강당에서 2024년의 마지막 월례조화를 개최했다.

이날 월례조화는 황인홍 군수를 비롯 무주군 실·과·읍·면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변화의 이해와 미래 준비’를 주제로 직장 교육 등이 진행됐다.

황인홍 군수는 “한 해 동안 행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자들의 헌신적이고 슬기로운 대처에 감사드린다”며 “차질없는 사업 마무리 잘하고 새해를 기약하는 희망의 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황 군수는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가 일상화됨에 따라 군민 안전을 위한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과 이웃사랑 실천을 당부했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복지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해를 거듭하며 쌓아온 노후유를 바탕으로 상수도 동파, 화재 등 동절기에 발생하는 취약상황을 철저히 대비해 군민불편을 최소화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읍·면장은 공직자로서의 신뢰



무주군은 2일 무주군민의 집 대강당에서 2024년의 마지막 월례조화를 개최했다.

를 무너뜨리는 행위다”며 “공직자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도 주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행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으며, 관광객 재방문율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중요한 열쇠인 만큼 체계적인 분석과 그에 따른 접근, 그리고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부서간의 적극적인 토론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무주군 공직자들은 월례조회 후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 이우택 강사를 초청해 ‘인구변화의 이해와 미래 준비’를 주제로 △미래산업의 변화, △인구 변화에 따른 미래 예측과 관점 제시, △청년인구의 중요성, △지방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전략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농식품부 2025년 지원사업 최종 선정

진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5년 로컬푸드직매장 지원 사업’ 국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은 직거래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상시적 운영이 가능한 농축산물 직매장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진안군은 지난 10월에 농림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서면심사와 사전현장 심사, 발표평가를 거쳐 12월에 최종 선정되는 결과를 얻게 됐다.

현재 진안군은 정주시 호성동에 위치한 로컬푸드 직매장의 신축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농식품부로부터 지원받는 국비 1억7500만원을 설계 및 건축공사에 투입할 계획이다.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전주 호성점은 2019년 개장한 이래 누적매출 380여억원을 달성하며, 지역 중소농가들의 소득창출과 먹거리 선순환체계에 기여하고 있으며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개년(2025~2026) 사업을 통해 신축 이전할 계획이다.

김남수 농축산유통과장은 “현재 관내 지역농산물 판로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로컬푸드직매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새로운 부지로 이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번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힘입어 사업추진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확대

무주군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을 총 72개 상품으로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무주군은 최근 ‘무주군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고 무주지역 15개 업체의 21개 상품을 답례품으로 추가 선정했다.



이번 추가 선정은 2025년부터 연간 기부액이 2,000만원으로 상향되는 것에 대비한 조치로 고액기부자를 위한 맞춤형 상품 개발, 기부자의 방문을 유도하는 관광·서비스형 상품 발굴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추가된 답례품은 내고향 재가부권(나들이권, 마을잔치대행서비스, 가전가구이용권), △관광서비스(사진·영상촬영권, 서핑체험권, 무주머투와인동굴 이용권, 태권도드벤처 이용권, 무주 눈꽃 덕유클럽 이용권 등), △농·축산물(호두, 사인머스켓, 잡곡세트, 쌀 등), △가공식품(누룽지, 찜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2025년 과수원예팀 소관 자체 보조사업 접수

장수군은 2025년 과수원예팀 소관 자체 보조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12월 2일부터 오는 1월 1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군은 보조사업들이 영농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신청 기한을 25일 앞당겼으며, 신청 기한이 짧은 의견들을 반영해 작년 대비 기한을 20일 늘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조기 사업추진으로 농업인들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내년 2월 중에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과수원예팀 군비 보조사업은 안정적인 농업생산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15개 사업에 약 2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자는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과수·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며, 사업별 지원조건 등 세부사항은 장수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농가경영주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주천면 학선동 마을영화 ‘최우수상’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 우수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서 수상

진안군 역량강화사업 지역기록가 양성교육의 일환으로 제작된 주천면 학선동마을의 마을영화 ‘참 좋은 동네’가 지난 11월 30일 전주공동체라디오 방송국에서 열린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 우수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가 주

최·주관하고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활성화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 우수 콘텐츠 공모전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공동체·개인의 작품에 대해 영상, 라디오, 신문, 잡지 부문에서 40여 편이 접수돼 공모상을 포함한 15편이 수상

작으로 선정됐다.

2022년부터 진안군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역 기록가 양성교육은 ‘내 손으로 만드는 우리 마을 영화’로 매년 2편의 마을영화를 제작했다.

일상의 에피소드와 마을만들기 활동을 주민 영화제작 방식으로 기록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성수면 중평마을의 ‘우리! 중평마을’과 주천면 학선동마을의 ‘참 좋은 동네’ 두 편이 제작됐다.

학선마을 ‘참 좋은 동네’는 마을 뒷산의 200년 넘은 엄나무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보호수로 지정받기 위해 주민들이 토지 소유주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화합한다는 내용의 영화다.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025년에도 진안군 역량강화사업으로 진행되는 ‘내 손으로 만드는 우리마을 영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역량강화사업 지역기록가 양성교육의 일환으로 제작된 주천면 학선동마을의 마을영화 ‘참 좋은 동네’가 지난 11월 30일 전주공동체라디오 방송국에서 열린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 우수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